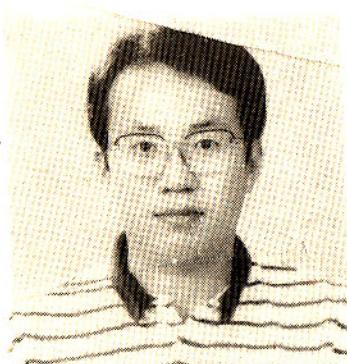




한국인과 한국기업의 카나다 進出戰略

(Ⅲ) 카나다경제의 특징과 그에 따른 한국인의 진출전략

김영수 (경제학박사)



세번째 손님

어디다 밭을 뻗을 것인가?

사실은 그 덕에 필자는 조금 재미를 보았다. 홍콩 사람들의 부동산 투자는 80%는 風水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필자는 순업터리이기는 하지만 필자 나름대로 동양 3국의 風水이론을 집대성하여 之이론을 전설특력(?)하고, 이는 일본과 홍콩의 일급 풍수들도 인정해주는 바이다. 그렇다고 필자의 풍수가 무슨 神通力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며 필자 자신은 風水이론을 전혀 는지를 않고 있고,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케쉬파워있는 홍콩사람들과 미신이라면 드를 주어가면 믿는 일본사람들을 위한 부지설계를 만들 적에 쓸려고 좀 연구를 해둔 것 뿐이다. 거기다가, 필자는 조금만 월알아도 아주 엄청나게 많이 아는 듯이 이야기하는 아주 편리한 재주를 가지고 있고, 누구던지 필자가 하는 소리에 조그만 반대라도 하였다가는 눈알 부라리기, 침 뛰기기, 삿대질 휘젓기, 둉네방네 고래고래 소리지르기 등등을 同時 多發적으로 동원해가며 우겨대는 나쁜 버릇또한 가지고 있

다. 당연히 필자와 激論(?)을 벌린 日辰 사나운 홍콩과 일본의 젊잖은 나이 지긋하신 풍수쟁이들은 젊은 필자의 이러한 風氣 旺盛한 野蠻동물적인 반응에 놀랄 뿐이었다. 그 기가차서 물러서준 것 뿐이다. 하여간, 일본의 큰 부동산개발업자들이 요사이도 왕왕 자기 집을 잡을 때나, 큰 프로젝트를 진행 시킬 때, 필자와 상의를 하는 것과 홍콩과 일본의 일급 풍수도 '선생님하면서' 연락을 계속하는 것을 보면, 필자가 눈을 부라렸던 것이 효과가 있긴 있었던 모양이다.)

원래 재산이란 것이 다 그렇다. 어느 특정 재산의 성분 속에는 '거품'이란 성분이 있다. 즉, 다른 사람이 원하기

때문에, 오직 그이유만으로 존재하는 가치, 그것을 거품이라고 한다. 即便 재산에서 '거품'이란 성분을 제하고 근거을 根幹, 즉, 펀디멘탈이라고 한다. 집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전혀 팔리지 않아도 여전히 있는 가치, 경치라거나 사는 즐거움이라던가 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거나 하는 부분을 펀디멘탈이라고 하고, 되팔 수 있기 때문에 있는 권리, 즉, 남을 위해서, 남에게 나중에 비싼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 부분을 '거품'이라고 한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 거품을 버블이라고 한다.) 그 버블이란 것을 戻도 한다. 그 버블이란 것은 漢字로는 어뚱게 쓰는 之이씨 모르겠지만, 이름은 아무래도 좋다. 나에게는 지금 가치가 없지만, 다른 사람이 나중에 원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지불할 용의가 있는 그런 가치를 말한다.) 거품이라고 하여, 허무하다거나, 곧 없어진다거나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부르는 것 뿐이다. 거품 중에는 근간보다도 훨씬 안정되게 가치를 유지하는 것도 있기에 그렇다. 좌우지간, 전체가치속에 거품이 비율적으로 극단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재산의

대표적인 예가 精幣이다. 精幣라는 것은 사실, 다른 사람이 받아 주지 않는 한 벽지나 휴지로도 쓸 수 없다. 왜냐하면, 병균이 버글거리기 때문에 그것을 휴지로 썼다가는 使用部位에 따라, 腹脹症이나 直腸癌이 걸리기 쉽상이고, 많은 양의 지폐를 한 번이라도 만져 본 사람이라면, 벽지로 쓰기에는 지폐라는 것은 냄새가 그야말로 고약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는 것을 잘안다. 정말, 죽을 때, 관속에 돈을 잔뜩 넣어서 가져 가거라하는 육만큼 지독한 육은 없다고 생각한다. 어데어데에피 떠겨 죽일 놈이란 육보다 훨씬 더 심한 육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추하고 냄새나고 병균덩어리인 이 종이 조각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한, 이것을 더 차지하겠다고, 가족끼리 재판을 걸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총을 쏴대고 별별 회한 한 짓을 다 한다. 지폐나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의 가치 속에는 거품의 가치가 거의 100%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사람이 원하는 집을 사야되는 만큼, 부동산 속에는 거품의 비중이 높은 것이다.

자, 이 정도면 '거품'이라는 개념의 정리도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필자가 이 복잡한 개념의 이야기를 왜 끄집어 내냐면, 부동산 속에는 이 거품. 아니, 이 버블이라는 성분이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따라서, 이 거품이라는 개념을 조금만 공부하면 부동산가치의 결정 메카니즘을 아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뭐 그렇다고 해서 복잡한 수식 같은 것을 사용하여 독자를 기를

〈필자 김영수 / Cranewood Corp 대표 682-8686〉